

전남일보

창의경영학교 스포츠클럽
전남도체육회

전남도체육회는 학교중심의 지역 연계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모델 육성 및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2013 창의경영학교 스포츠 강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스타가 창의경영학교를 직접 찾아 일일 스포츠클럽 지도와 사인회, 기념품 전달 등 즐거운 스포츠체험을 통해 학생의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열리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날 구례고등학교에서 배드민턴 스포츠클럽을 진행했다. 박찬웅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 감독을 일일 강사로 초청해 50명을 대상으로 선수 지도 경험담을 들려주고 학생들의 실기 지도를 했다. 박 감독은 전 주니어국가대표 감독이자 현 전남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고교 시절 이용대 선수를 조련하기도 했다.

오는 9월 25일에는 전남 드래곤즈 축구 선수를 초청강사로 장성 삼계고등학교에서 축구 스포츠클럽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dhcho@jilbo.com**



구례고 학생들이 15일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3 창의경영학교 스포츠 강습 '찾아가는 일일 스포츠클럽'에 참여해 배드민턴 체험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남도일보

전남도체육회, 창의경영학교 1일 스포츠클럽

어제 구례고서 박찬웅 배드민턴 감독 실기지도

전남도체육회는 15일 전남 구례군 구례고등학교에서 2013년도 창의경영학교 스포츠강습 1일 스포츠클럽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를 조련했던 박찬웅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 감독(전 남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이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선수 지도, 경험담 및 실기지도했다. **(사진)**

2013년도 창의경영학교 스포츠 강습은 지역과 연계해 학교중심의 체육 활성화 운영모델 육성 및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 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1일 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가 창의경영학교를 방문해 지도와 사인회 등 학생의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동기를 강화할 전망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9월 25일 장성군 삼계고등학교에서 전남드래곤즈 소속 축구선수들이 참여하는 1일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광남일보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1일 스포츠 클럽'

전남도체육회

전남도체육회는 15일 구례고등학교에서 2013년도 창의경영학교 스포츠강습인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1일 스포츠클럽'을 진행했다.

교육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스포츠클럽은 학교 중심의 지역 연계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각 분야의 스포츠 스타가 학생들과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나누며 클럽 활동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고교 시절 이용대를 조련했던 박찬웅 전남기술과학



전남도체육회는 15일 구례고등학교에서 2013년도 창의경영학교 스포츠강습인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1일 스포츠클럽'을 진행했다.

고 배드민턴 감독(전 주니어국가대표 감독)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기 지도와 경험담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9월 25일 삼계고에서 축구 스타와 함께 하는 스포츠클럽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일보

스포츠 스타에 배우는 스포츠 강습 호응

전남체육회, 박찬웅 배드민턴 감독 초청 구례고서 '1일 스포츠클럽'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일일 스포츠클럽 강습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체육회는 15일 구례고에서 박찬웅 전남과학기술고 배드민턴 감독(전 주니어국가대표 감독·현 전남 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창의경영학교 일일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 감독은 고교시절 이용대를 조련, '한국 배드민턴의 '스타'로 육성했다.

일일 스포츠강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즐거운 스포츠 체험을 통해 학생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운영



박찬웅 전남과학기술고 배드민턴 감독(왼쪽)이 지난 15일 구례고 체육관에서 '스포츠스타에게 배우는 일일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일환으로 학생들과 게임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학교 중심의 지역 연계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스포츠스타들의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실시중"이라

며 "오는 9월 25일 장성 삼계고에서 전남드래곤즈 축구선수를 강사로 초빙해 축구교실을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등일보

도체육회, 창의경영학교 1일 스포츠클럽 개최

전남도체육회가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1일 스포츠클럽을 개최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 주관, 교육부 후원으로 열린 2013년도 창의경영학교 스포츠강습 '스포츠 스타에게 배우는 1일 스포츠클럽'이 15일 구례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고교시절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를 조련했던 박찬웅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 감독(전 주니어국가대표 감독·현 전남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이 선수 지도 경험담 및 실기지도했다. 이어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의 연계 활성화 운영모델 및 교육재능기부 등을 소개했다. **임정욱기자**

